

광주시청사 '시민 열린광장' 으로 탈바꿈 한다

개청 20주년 정례조회서 '시민 머무르고 싶은 열린청사' 공개 담장 허물고 표지석·지장물 등 철거...시민참여형 공간 꾸며

광주시청사가 개청 20주년을 맞아 광장 기능을 살린 '열린 청사'로 탈바꿈한다.

광주시는 2일 대회의실에서 4월 정례조회를 열고 '시민이 머무르고 싶은 열린청사 조성 방안'을 공유했다.

광주시는 2022년부터 열린청사 조성을 위해 현 안토론, 전문가 자문회의, 선진지 견학, 전담팀(TF) 운영 등을 통해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특히 '지방재정의 숲 조성 사업' 공모에 참여해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더해 2022~2023년 열린청사 조성사업 재원을 마련했다.

시민 접근성과 활용도가 가장 높은 청사 외부는 시민 편의를 중심에 두고 '광장' 기능을 살리기로 했다.

청사 외부 전면 개방을 통해 시민이 청사외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개방감을 확대한다. 또 보행 동선을 가로막는 표지석, 격자형 보도, 지장물 등을 철거하고, 대신 쉼터 등을 마련해 열린공간으로 조성한다.

시청사 앞에 있는 높이 16.5m에 달하는 이탈리아 거장 알렉산드로 멘디니(1931~2019)의 작품 '기원'도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멘디니 유족에게 연락해 처분권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철거, 이전, 활용 등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청사 내부도 대폭 개선된다. 특히 청사 1층에 있는 홍보관, 전시관, 카페 등이 흩어져 있어 주의를 분산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리모델링 수준의 재배치에 나선다.

우선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청사 내부 1층 내 시설 중 시민이용도가 낮은 시설을 없애는 대신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카페를 새로 열고, 캐스퍼 홍보관은 눈에 띄는 위치로 이전하기로 했다. 또 시민과 객맞이방은 독립공간으로 꾸미고, 시민이 이용가능한 회의실 등과 함께 일원화해 시민참여형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열린청사는 오는 6월 준공 예정이다. 광주시 치평동 청사는 2004년 3월 30일 현재 위치로 이전해 문을 열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정사는 시민행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역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주의의 담론 생산지이자 공공이 가진 예술작품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유처가 되어야 한다"며 "열린청사는 우리의 발길, 눈길, 바람길 등을 가로막는 지장물을 없애는 것으로, 이에 더해 행정적, 정치적, 문화적 서비스를 신속히 하고, 시민을 따뜻하고 친절히 맞이하는 배려까지 갖춰 지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개청 20주년을 맞은 광주 시청사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AI활용 지능형응급의료시스템 도입 골든타임 확보"

과기부 시범사업 선정...AI앰블런스 병원과 응급환자 정보 공유

전남도가 과학교육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24년 지능형응급의료시스템(AI앰블런스) 시범적용 지역 공모'에 선정돼 도민 응급상황 발생 시 치료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지능형응급의료시스템은 기존 응급의료 체계의 기술적,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구급차에 영상을 수집하는 통신 캠과 음성을 수집하는 블루투스 마이크, 5G 태블릿을 탑재하고,

119 종합상황실과 의료기관에 응급서비스를 표출하는 장비를 도입해 구축하게 된다.

이처럼 구급차와 종합상황실·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정보를 공유하면 의료기관은 환자 도착 전 수술 준비 등 최적의 치료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환자 이송 시 교통사고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으로 가는 최단 경로를 자동 안내하는 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2년간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도 소방본부에 '인공지능 앰블런스' 20대와 의

료기관 6개소에 이상 중 응급환자 정보 등 응급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기기(ER-KIOSK)를 배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시범적용 지역의 지능형응급의료시스템 서비스 효과성 분석을 통해 서비스 적용 지역 확산 및 보급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인공지능 앰블런스가 도입되면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소방,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물가안정 앞장 '착한가격업소' 지원 강화

시, 226곳 전기요금 등 운영비 지원 상생카드 5% 추가 캐시백 혜택도

광주시는 '시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226곳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1억 9000만원 예산을 투입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전기·가스요금·상하수도요금·쓰레기봉투 등 업소 운영에 필요한 분야를 지원한다.

또 착한가격업소 매출 증대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는 광주상생카드 결제 때 기존 7% 선할인은 물론 추가로 5%를 캐시

백으로 돌려준다.

신한·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국내 9개 신용카드사와 협력해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카드 결제 때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면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고 해당 자치구에서 현장실사와 가격, 위생·정결, 공공성 등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현재 광주지역 '착한가격업소'는 총 226개소로 외식업 150개, 개인서비스업 76개소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5000억원 규모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조성

2026년까지 대기업 등과 공동출자 올 55억 규모 혁신벤처펀드 출자도

전남도가 오는 2026년까지 모두 5000억원 규모의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를 조성한다. 이차전지, 바이오 등 최첨단 전략산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기업 지원기관과 전담반(TF)을 구성해 국내 벤처투자자, 국내 대기업, 한국벤처투자 등을 방문해 모태펀드 공동출자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가 부담하는 액수는 전체 규모의 10%인 500억원으로, 도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계획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우선 지역창업초기펀

드에 50억원, 지역혁신벤처펀드에 50억원을 각각 출자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모태펀드 2024년 1차 정식 출자사업'에 지역창업초기펀드와 지역혁신벤처펀드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모태펀드는 정부기관의 예산 등을 활용해 결성한 펀드로, 안정적인 벤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5년 결성돼 운영 중이다.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재원 공급은 정부가 하되, 투자자의 결정은 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담당하고 있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혁신벤처펀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혁신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하는 모펀드로 출자했다. 전남도가 올해 500억원을 출자하고 향후 3년간 총 470억원 규모의 6개 자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 전남도가 500억원을 출자하는 지역 창업초기펀드는 총 50억 원 규모다. 초기

창업기업이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투자심리 위축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벤처·창업기업에 신속한 투자자금이 공급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벤처·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내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모태펀드, 민간 출자자와 함께 정책 목적 펀드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전남도·해양관리협의회, 수산물 저변 확대 협력

국제 수산물 인증 반영 선제 대응

전남도가 2일 해양관리협의회(MSC)와 지속가능한 수산물 저변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이 전남 수산물의 유럽, 미국 등 해외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해양관리협의회 대표, 전남 어업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해양관리협의회는 지속가능 어업의 표준을 제정하는 세계 비영리 기구로, MSC의 기준에 맞게 어업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심사를 통해 MSC 어업 표준 인증(ASC-MSC)을 부여

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해양관리협의회는 해조류 인증표준 개정 시 전남도의 양식 방법 등 수산업 여건 반영, 인증에 필요한 교육·인증 심사 위원 양성·인증 컨설팅 인력 양성 교육, 전남 수산물의 국내외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한 수출시장 개척 및 유지 협력, 지속가능 수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을 위해 상호 노력하게 된다.

전남도는 인증 수산물이 내수 프리미엄 시장과 신규 수출시장에 진출하도록 해양관리협의회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전남 수산업 여건을 반영한 국제 인증표준 개정도 선도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신문 읽는 오늘 더 지혜로운 내일

지식을 넘어 지혜로 -
정보를 넘어 경쟁력으로 -
오늘 읽은 당신의 신문이
내일을 앞서는 힘이 됩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